

시즌3 - 1호 | 시편 1 ~ 25편

PEACE CHURCH

HAPPY MEAL Kit

해피밀은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복있는 일상을 위한 매일 <경건밀키트> 입니다.

해피밀 시즌3 - 1호를 발간하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봅니다.

살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께 주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어느 새 해피밀 시즌2를 마치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하루하루가 하나님
의 은혜였고, 성도들의 성장 스토리였음을 고백
합니다. 함께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 주님께는 영
광이 되고, 각자에게는 기쁨이 되며, 평안교회 공
동체에는 열매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즌2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통
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을 확
립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견지하고 삶으로 증명하여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삶
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보이는 반응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고 매력있게 천
국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
울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기억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까지 주님께
서 기뻐하시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
로 응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3는 시편, 잠언, 전도서에
담겨 있는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
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수치가 참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을 이루는 이들
의 지혜와 기도, 찬양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시즌3
지혜서를 통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
운 계획과 섭리를 지혜롭게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모든 평안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6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Paul Jung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 의를 행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복 있는 사람

제1편은 모든 시편의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될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악인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은혜만이 오늘을 살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인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누구보다 능력이 넘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를 위해 1편을 묵상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욱 그리하십시오. 스스로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통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주님이 우리의 형통함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Q. 특별히 자주 무너지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를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1편을 다시 묵상합니다.

7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0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온 세상의 통치자, 그리스도

제2편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1-3절). 그들의 숫자는 무척 많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악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십니다(4-6절).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여도, 그들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있는 나의 왕아,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먼저는 다윗 가문(사무엘하 7:14)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길 구하십시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12절)**을 기억하십시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진 않으신가요?

Q. 인생의 기로 앞에서 늘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2편을 다시 묵상해봅시다.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시니이다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주님은 나의 피난처

바로 어제, 우리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편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내용의 시입니다. 화자는 다윗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과 백성들마저 압살롬의 편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히 도피해야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심한 배신감, 커다란 두려움으로 인해 몹시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감정에 눌려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압살롬에게 도망치는 발걸음보다 더욱 빠르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주님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게 아무 소유가 없어도, 내게 아무 능력이 없어도, 심지어 나의 잘못이 포함된 상황일지라도 말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혹시 내 삶이 마치 도망자 다윗과 같이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속히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배신을 당했을 때 혹은 세상 풍파에 짓눌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Q. 주님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모두 아십니다. 평안을 구하는 심령으로 제3편을 다시 읽어봅시다.

2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3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5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6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꺼내보세요!**

세속적인 비교 의식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남보다 더 갖는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남들보다 갖지 못했을 때는 마치 자신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가진 자들이 만족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의 눈을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에게는 눈을 돌려서 그들이 스스로를 공허한 인생인 양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 허탈함을 하루 종일 안겨주며 밤잠까지 설치게 합니다.

제4편은 이러한 잘못된 비교 의식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7절)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더 이상 남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 상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가져도 괜찮게 느껴질 정도로 인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속적인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신 분께로 눈을 돌리십시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혹시 남들과의 비교로 인해 밤잠을 이루는 것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Q.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십니다. 이를 믿으며 제4편을 다시 묵상해봅시다.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4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7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

제4편이 밤의 기도라면 제5편은 아침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아침부터 기도하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기도한 것 일까요? 8-10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몹시 괴로웠던 그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달라”(1절)며 간구했습니다.

또한 아침의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깨운다는 의미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법정은 주로 이른 아침에 판결을 내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구하며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준엄한 판정에 의지하였습니다. 왕의 권력을 빌어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맹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고뇌하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듣고 여러분의 심령을 헤아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을 녹여내고 기쁨을 꽃피울 온전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의 기도로 아침을 채워봅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말씀 외에 아침 일찍 묵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Q. 하나님의 심판을 구해야 하는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제5편을 다시 한 번 읽으며 기도해봅시다.

온 가족 <시편 1편> 묵상하기

1. 시편 1편을 필사해봅시다. (청소년용)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 시편 1편의 의미를 나눠봅시다. (가정의 대표자)

대표자가 '월요일 해피인사이드'를 읽거나 혹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 '토요일 미니홈피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3. 핸드폰 배경화면을 변경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해봅시다. (온가족)



시편 1편 배경화면 다운로드 (QR 코드 스캔)

1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4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6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8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9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짧이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밤마다 침상에서**

화자는 밤마다 침상에서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5절에서 "사망, 스올"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후반절에 "대적, 원수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없기에 질병 자체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화자의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렸습니다. 그는 언제까지 이 고통 견뎌야 할지도 모른 채 "어느 때까지니이까" (3절)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굵이마다 "어느 때까지니이까"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이든, 사회적 문제이든, 개인적 문제이든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시간 속에 계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보면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8-9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대적도 결국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떨며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이 확실합니다(10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모든 걱정과 근심을 아뢰고 일용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주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Q.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으로 인내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은 적이 있나요?

1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 10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1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14 악인이 죄악을 나눔이며 재앙을 배어 거짓을 낳았도다 15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듬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17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주님께서 나의 방패이십니다

괴물에게 쫓기는 영화를 보면 중요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괴물로부터 주인공을 지켜줄 피난처입니다. 주인공과 사람들은 "거기까지만"을 외치며 피난처까지 도망칩니다. 그 도망길에는 분명 많은 역경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속 인물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곳에 도착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에게 그런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1, 10절). 저자는 3-5절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자신의 죄가 발견된다면(3-4절) 원수에게 짓밟혀도 좋다(5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6-9)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모임의 머리에 계시며, 죄인들을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능력있는 분이신지 칼과 활과 도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12-13절). 그의 앞에서 악인은 그 어떤 힘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이 준비한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14-16절).

화자는 주님께 피하였으며, 주님께서 방패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악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화자는 당당하게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사자와 같은 무서운 문제들이 있나요?

Q.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나요?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인가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해가 뜨는 광경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이 강렬한 주홍빛으로 물들어가는 장면은 경이롭고 강렬하며 아름답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온 땅과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바라보자마자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1, 9절). 그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린아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찬양합니다. 젖먹이들이 무언가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가요? 무언가를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언변이 뛰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막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능력 없는 자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2절).

지구가 올바른 각도와 속도로 돌고, 때에 따라 해가 뜨고 지고, 달과 별이 밤에 수를 놓는 것.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자연 만물이 섭리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신실하게 운행되어집니다.

창조세계가 신실하게 운행되는 것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는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해돋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광경은 어땠나요?

Q. 창조의 세계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은 무엇인가요?

1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2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3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 7 여호와께서 영원히 앎심이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 11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2 피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 18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19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수많은 기이한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1절).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오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 그것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심판자로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공의로 악인들을 벌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멸망에 이릅니다. 그들의 이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으며, 그들의 성읍은 셀 수도 없이 격파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심판 아래에서 백성들은 안전한 요새를 경험합니다. 그분은 그를 찾는 모든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가난한 자, 사망의 문 앞에 선 자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사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며 동시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생으로는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셨으며(19절), 인생이 구원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20절). 심판 받을 자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하실 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고 그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쓴 적이 있나요?

Q.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3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멀리 하나이다 4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 12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 16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7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저마다의 정의**

저마다 기대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하나님께도 부여됩니다.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정의에 부합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에 반해 부합하지 않으면 뒤돌아서고 마음으로,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기도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애타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요한복음의 마르다도 죽은 오빠 나사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탄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도 여호와를 배반하며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감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 일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곧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시 일어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문제를 가져갑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해결 받는 자들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신가요?

Q.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었나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 필사하기>

가정에배 미니홈피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
 가 베푼 죄에 빠지게 하소서 3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5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
 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7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
 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 그
 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
 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
 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10 그가 구푸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11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
 니하시리라 하나이다 12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
 으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3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
 까 14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
 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15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
 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16 여호와께서는 영원무
 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7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
 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4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5 여호와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7 여호와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을 힘겹게 내딛고 또 내딛는 연속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표본이 되어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초기에는 사울의 위협이, 인생의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위협이 그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단 한 순간도 태평성대 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며, 이것은 어쩌면 죄로 인해 척박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일반적인 인생의 시험과 위기와 고난 앞에서 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이라고 고백합니다. 1~3절은 다윗의 곁에 있는 군사고문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피할 것을 요청하지만, 다윗은 1절에 선언하듯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절 말씀에는 그가 여호와께 피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여전히 성전에 계시며, 그분은 여전히 하늘의 통치자로 인생을 통촉하며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억울한 위기와 위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분은 정의롭고, 바르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이며,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여전하심을 믿는다면, 응당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함으로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지금 나의 삶에 있는 일반적인 위기와 고난은 무엇인가요?

Q. 여호와께 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도록 하는 소리가 있으신가요?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2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5 여호와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 여호와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7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8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여호와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공정한 판단, 공정한 결과, 객관적인 인정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가진 기만적인 본성은 애초에 공정과 정대로부터 멀어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는 뼈뿔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충실함이 박대 받으며, 끊어지는 이유가 2~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이라는 위선적인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 제 9계명으로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램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집단적('우리'라고 표현된 복수형을 주목하세요)으로 옳은 것을 그르다, 틀린 것이 선하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위선적인과 기만적임이 우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8절에는 하나님의 역전하심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분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이들을 위하여 용사처럼 일어나 심판하실 것입니다(5절). 그 분은 말로 심판하시되 그 분의 말은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으로 정확한 잣대이며, 순결한 표준입니다. 그 분의 평가를 뒤엎을 악인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6절). 그 분은 경건하고 충실한 자를 돌보사 영원까지 돌보실 것입니다(7절). 그러나, 8절은 오늘 이 시대를 다시 조망합니다. 현재는 악인들이 날뛰는 시대이며, 이러한 시대에 시편 12편의 찬송은 경건하고 충실한 자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가운데에서 부당한 평가와 대우를 당하신 적이 있나요?

Q. 억울한 마음을 가득 안고, 시편 12편을 소망으로 읽으며 나아갑시다.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3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나

'어느 때까지' 라는 말 속에는 인생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 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고난이, 심적인 우울감이, 마음에 번민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그는 원수로부터 오는 공격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으로 부터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묻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환란을 대하는 자세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해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이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이 환란과 고통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저 냉정하고 맹렬한 원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 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3절의 고백처럼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이 환란의 원인이 하나님임을 발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란이 사랑의 징계이며, 선을 위한 과정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끝이 있을 환란, 그리고 그 끝에 선을 이루신 그 분의 큰 뜻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6절의 마지막 고백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으로 끝맺어집니다. 환신과 찬양의 이유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입니다. 언약적 사랑에 신실하신 주를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어느 때에' 끝날 지 모르는 환란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Q. 언약적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란이 다가왔다고 한다면, 이 환란이 어떻게 해석될까요?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6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수히 많지만, 여기에서는 '나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은 하지만(5절 :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 하나님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생각하여 '무시(5절 :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합니다. 잘못된 신념이 그들을 이리석게하고, 어리석에 행동하도록 합니다(4절).

그러나 이에 반해 시편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굽어살피십니다(2절). '굽어살피사'라는 단어는 성경 신학 속에서 '인간사에 개입하여 축복하고, 돕고, 멸망시키거나, 인간의 행동을 면밀히 살피심'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면밀하고 적극적인 살피심은 의인에게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는 비록 악인들의 횡포로 인해 가난하나(6절)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사람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나의 신념은 어리석은 자에 속하진 않습니까?

Q. 감찰하시사 정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드립니다.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 그의 험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시편 기자는 누가 여호와와 성소, 성산에 머물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2-5절까지의 특징을 가진 자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윤리적으로 옳게' 살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시대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2절)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윤리적인 의식이 터부시 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윤리보다도 합리성과 효율성과 부가가치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둡니다.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기가 어려운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회의 구조와 권력의 지배 아래에서 각 자 가진 나름대로의 청렴하고 푸른 뜻을 선포하기 어렵고, 사회가 말하는 것에 따라 스스로의 진실함을 왜곡시켜야 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또한 험로 남을 허물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회는 험로 자신을 치켜세우기 위해 서는 험로 남을 깎아내려야 한다는 경쟁의식을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보이시는 태도입니다. 그 분은 자신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멸시하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세상의 눈을 따라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어떻게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설 수 있을까요? 위의 모든 것을 충족하신 그리스도의 공의를 힘입어 그것이 가능함을 고백할 따름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Q.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모든 공의를 충족하신 주님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식구 다 같이 <11-15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시편 11-15편까지

온 가족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읽기를 진행해보세요. 오늘은 시편 11편~15편까지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도 좋아요!

2) 우리 가족 시편 오락관!

아래 QR 코드를 통해 시편 14편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빈 칸에 알맞은 가사를 넣어보세요. 청취 기회는 딱 한 번 뿐입니다.



모두 다 ()길로 향하여 썩었으니 선한 일을 하는 이 ()도 없네
나의 백성을 ()먹듯 먹으며 하나도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우리는 오늘 함께 시편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3편'이에요. 시편 13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편 13편을 읽는다) 시편기자는 지금 '여호와여 어느때까지 니이까'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삶에 매우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데, 도무지 이 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 일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고난은 우리에게 이러한 탄식을 말하게 해요. '언제까지 입니까!?' 고난이라는 힘겨운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우울하고 힘들게 만들죠. 혹시 최근에 그러한 고난이 다가온적 있나요? (삶 나눔을 진행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터널에 끝이 있듯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힘겨운 일은 마치 그것이 끝이 없다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끝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말이지요.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했음을 기억해야 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망의 잠(3절)'을 자게되었을 거예요. 기도함으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얻는 우리 가정이 되길 기도해요.

1 하나님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총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하나님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안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삶은 긴장과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최고의 안전은 어디 있을까요? 안전은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시작됩니다. 다윗이 안전에 대해 갈망하는 동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스올'에 대한 강조(10절)를 통해 질병이나 개인적인 위험을 통해 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 밖에'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안전은 주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선이 되심을 신뢰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성도는 피난처이시자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순수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일과 모든 관계에서 손익을 계산하며 불안과 괴로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먼저는 그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으며 그의 보호하심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움, 즐거움입니다. 우리 즐거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삶 가운데 안전이 가장 필요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 오직 하나님께만 안전을 구했습니까?

Q. 주님만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심을 주변에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봅시다.

1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4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13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하나님은 최고의 판사이십니다.**

해결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곳에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 때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과 대치하며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지만 그 결과는 상이 아닌 쫓기는 고통과 억울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통과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로 고통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기도로 다스릴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실 것(6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숲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대적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음에도 그는 자신감 넘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분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무죄함을 쏟아 낼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다윗처럼 자신의 무죄함을 쏟아내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해결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억울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도하며 인내할 것을 결단합니다.

Q.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되었음에 감사 고백을 하는 하루가 됩시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49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50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나의 피난처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디가 피난처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내가 선호하는 장소가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심각하게 죽을 뻔할 정도의 위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3,4절)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거듭 다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전'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죽을뻔한 위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뿔(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고백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것을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에 빗대어 이야기 합니다. 자연 현상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위엄과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가 하나님 외에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곳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고민해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Q.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열납되기를!

시편 19편은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신성시했던 해의 운행마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우리 일상의 삶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곳이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의 질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시의 전반부에 피조세계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결같고 변함 없으며 믿을 만하고, 올 곧고 순수하여 삶의 지침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로 마무리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하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해와 달의 움직임, 비와 바람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열납되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의 마음에 흡족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이며 그가 주관하시는 세상임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Q.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만족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4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는 마치 전쟁 전날 밤 기도와 애배를 드릴 때 적절한 고백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한 쌍을 이루는 시입니다. 두 시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20편은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21편에서는 왕에게 마음의 소원이 그의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전쟁의 도움을 구하는 고백을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도움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에서 온다는 것(6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이 능력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왕은 자신들이 군대의 힘이나 병거와 기마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앞을 막고 있는 골리앗과 전투를 나갈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삼상 17:45]"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승리를 이미 승리를 얻은 것이고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깃발을 들어 승리를 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가 경험했던 영적 전쟁의 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욕심, 교만 등등)

Q. 오늘 하루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19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8~10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시편 19편

온 가족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읽기를 진행해보세요. 시편 19편 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도 좋아요!

2) 시편 19편 노래 감상하며 가정예배를 준비해보세요!

아래 QR 코드를 통해 시편 19편 찬양을 들어보세요. 찬양을 들으며 예배 드릴 마음을 준비해 봅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원하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태양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와 율법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들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방법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위협을 당하든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생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함으로 우리 삶에 길잡이가 되며 도덕적인 원칙을 잘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눈'은 인생에서 바라보는 것을 열망하는 기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바라볼 때 우리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게 되기를 고백하는 우리 가정 이 되기 원합니다.

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셀라) 3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4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5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 나이다 7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왕이 있음을 기뻐하라

시편 21편은 20편의 기도예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왕이 있었기에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왕을 묘사하는 말들이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날'을 허락받았고 '지극한' 존귀와 축복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점 부풀림 없는 진실입니다. 존귀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와 마지막 승리를 보장하시는 약속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의 소원'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에는 이 시편처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시편 21편의 전반부(1-7절)는 다들 듣고 싶어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이 원수들을 벌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후반부(8-13절) 역시 분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당장 안락하고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이들은 이 구절들이 다소 불편할지 모르지만 불의와 억압을 당해 온 이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는 재판관이므로 우리가 나서서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원한을 떨쳐 내고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왕의 통치와 심판이 나에게 있어서 소망과 위로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Q.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혀 지내는 대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19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4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5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26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축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다

시편 22편에서는 모든 게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라는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22-24절). 구원받은 종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마 28:18-20). 하지만 그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려 변화시키시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은총을 전하기 위해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수원의 기쁜 소식을 가난한 이들(26절)과 부유한 이들(29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 모든 인종과 민족들(27절), 그리고 모든 세대(30절)에 전하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아우르는 이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외쳤습니다(31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요 19:30)고 선언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로 지불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한 톨까지 다 빛을 갚으셨으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롬 8:1)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의 은총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Q.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선한 목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 빠져나온 뒤가 아니라 그 한복판을 헤매고 있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 어려움이 더없이 심한 순간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구하기 보다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절대로 자신의 양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중동에선 양의 주인들이 목동들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기 전에 뒷발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주인들은 그 몸에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곰, 늑대, 맹수들로부터 양을 구하기 위해 생긴 이빨 자국, 발톱 자국, 할킨 흉터가 몸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그 흉터가 있는 자들을 목동으로 택합니다. 이처럼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목동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입니다(요 10:11,15).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생긴 흔적이 많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자국과,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결국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흉터가 보인다면 내 삶, 내 생명, 내 미래,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는 흉터가 많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그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주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Q.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기도하는 훈련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 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3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하나님의 영광을 좇는다는 것

세상의 모든 재물과 재주, 건강과 권력, 쾌락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중한 보화는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견주지 못할 지극한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아는 일은 비탈이나 산을 오르는 것과 매한가지여서 늘 애쓰며 힘겹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깨끗한 양심을 좇아야 합니다(4절). 우상을 찾아 내버려야 합니다(4절).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 32:26)라고 했던 야곱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곧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러저러하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저 의무감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지만이 아니라 마음도 드려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매력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근사한 일은 없습니다(빌 2:5-11).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갈망하며 세상과 씨름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Q. 하나님의 끝없는 매력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며 누리고 계신가요?

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6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 여호와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0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11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3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 여호와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더 좋은 질문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십니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이끌어 가실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지리를 깊이 묵상하고 새겨서 (4-5절) 성경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일들까지도 올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기에는 지혜가 턱없이 부족하지만(9절) 스스로의 죄와 한계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11절).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것들은 하나같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10절).

주님은 이런 마음 가짐을 가진 이들에게 속내를 보여 주십니다(14절).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져서 성경의 법칙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삶의 술한 상황들에 부닥칠 때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릴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선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지혜와 판단력, 분별력이 가수록 자라게 하시고 겸손이 그 바닥에 깔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말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Q.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과 예수님이시라면 마땅히 내리셨을 선택을 우리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23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자녀들과 색칠공부를 할 때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색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 31pg)



COME

평안교회
소개영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Tel 0507-1365-8119

Address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로218번길 110 평안교회

E-mail peacechurch@gmail.com

Homepage www.peacechurch.kr